

무릎을 꿇고 턱으로 빠지는 노래

《무릎을 꿇고 턱으로 빠지는 노래》는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30년 전시의 서두이자, 제 1전시실의 공간 리노베이션에 맞추어 진행되는 김소라 작가의 사운드 퍼포먼스 프로젝트이다. 시각 이미지를 배제하고 비물질적인 ‘소리’만으로 공간을 구성한 이번 전시에는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여덟 명의 음악가-황병기, 강태환, 계수정, 박민희, 방준석, 손경호, 최태현, 알프레드 하르트-가 협업 작가로 참여하였다. 10대의 스피커에서 퍼져 나오는 소리로 텅 빈 공간을 채우면서 그 파동과 흐름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하는 이번 전시는 소리, 신체, 공간에 대한 새로운 경험과 사유를 열어 둔다.

김소라(1965-)는 관계 맺기와 소통 과정에 기반한 비디오, 사운드, 설치, 퍼포먼스 등을 통해 인간과 주변 세계에 대한 열린 해석을 시도해 오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개념미술작가이다. 전시 제목이자 작품 제목인 ‘무릎을 꿇고 턱으로 빠지는 노래’는 김소라 작가가 작성한 텍스트 스코어(글자 악보)이면서 동시에 여덟 명 음악가들의 퍼포먼스를 위한 일종의 지침이다. 김소라 작가는 모든 계획과 의지를 내려놓고 소리가 온전히 신체를 관통하는 소위 ‘무릎을 꿇고 턱으로 빠지는 노래’를 만들어주기를 각각의 음악가들에게 요청하였다. 작가에 따르면 소리는 신체와 그 신체를 통과하는 공기/대기/우주로 이루어진 것으로, 소리를 낸다는 것은 우주적인 사건이자 지극히 신체적인 방식으로 다다른 정신적인 영역이다.

김소라 프로젝트

여덟 명의 음악가들은 가야금, 색소폰, 피아노, 정가, 전자기타, 드럼, 전자음악 등 각기 다른 사운드 퍼포먼스를 통해 김소라 작가의 스코어(악보)에 화답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여덟 개의 음원들은 음악감독 장영규의 포스트 프로덕션을 통해 한점의 소리 작품으로 재구성되었다. 텍스트 스코어→사운드 퍼포먼스→포스트 프로덕션 등 복합적인 작품 생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한 점의 소리 작품은 현대미술가와 음악가들 간의 협업체제가 만들어 낸 집단 창작의 흥미로운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관객은 모든 가벽이 철거된 빈 전시 공간에서 보이지 않는 소리를 통해 공간을 새로이 경험한다. 때로는 단일한 음원의 울림을, 때로는 섞여진 중간 향의 소리들을 청각적 경험을 넘어 촉각적이고도 신체적으로 지각하게 된다. 논리적인 연속성 대신 자유롭게 교차된 비언어적인 소리는 다양한 변화 가능성과 열린 해석을 지향한다. 관객이 이 소리의 공간 속에서 자기 나름의 이야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무릎을 꿇고 턱으로 빠지는 노래*를 부르시오.

노래* 이는 소리가 잠시 내 몸을 통과하게 허락하는 기술이다. 지나는 모든 소리는 결코 서로 같지 않고, 몸과 반응하여 다채로운 음색과 화음을 만들어낸다. 이 조우는 서로에게 매우 특별한 느낌으로 기억된다.

Please sing a song* from knee to chin.

Song* The word refers to a technique that allows the sound passes through one’s body. Each and every passing sounds are unlike to each other reacts different to the body that passes through, creating all sorts of tones and tune. You usually have special feeling from this encounter.

Songs from Knee to Chin is a prologue to the special exhibition that will celebrate the 30th anniversary of the MMCA Gwacheon as well as a sound performance project by artist Sora Kim that is being held for the first time in the newly refurbished Gallery 1 space of the museum. Eight musicians who are active both at home and abroad take part as collaborators in this exhibition where the space consists of only non-material “sound” and visual images are excluded. The participating musicians are Byungki Hwang, Taehwan Kang, Soojung Kae, Minhee Park, Junseok Bang, Kyungho Sohn, Taehyun Choi, and Alfred Harth. This exhibition enables viewers to feel waves and stream of sounds as they flow from ten speakers and spread throughout the empty space of the venue with every fiber of their being, opening up a new dimension of experience and thought on sound, body, and space.

Sora Kim(1965~)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Korean conceptual artists who has been making forays into open interpretations of humans and surroundings through video, sound, installation and performance based on entering into a relationship and the process of communication. *Songs from Knee to Chin*, the title of both the exhibition and the work itself, is a text score Kim has composed that also acts as a sort of guideline for the eight musicians’ performances. Kim has asked them to make “songs that enter through the knees and leave through the chin,” entailing sound that passes through the body without any plan or purpose. To the artist, sound consists of air, the atmosphere, and the universe which passes through his or her body, and making a sound is not only a cosmic event but also a spiritual realm one can reach in an extremely physical manner.

The eight musicians have sought after the sound of existence through their different performances using the *gayageum*, saxophone, piano, *jeongga*, electric guitar, drums, and electronic music in response to Kim’s score. The eight original sounds produced in this manner were then combined into a single piece by music director Younggyu Jang through his post-production work. A sound work created through this complex production process (text score to sound performance to post production) is thought of as an interesting outcome of collective creation through a collaboration system between a contemporary artist and musicians.

In this exhibition viewers are able to experience space in a new way through the medium of invisible sounds in a venue where all free standing walls have been removed. At times viewers may have a tactile or physical perception of a resonating sound while at others mixed sounds, moving beyond their aural experience. Kim pursues the possibility of various changes and open interpretations through freely crossing nonverbal sounds in lieu of any logical continuity. For this reason viewers are able to generate their own narratives in this space of sound.

김소라 (1965-, 작가)
김소라의 작업은 떠다니는 움직임, 언어, 땅상의 궤적을 그린 지도이자 모든 방향으로 던져진 공의 운동이다. 작가는 작업의 출발점이자 동시에 관찰자의 위치에서 최소한의 언어로 된 단서들을 협업자들에게 전달하고, 그것이 그들에 의해 해석되고 응결되는 과정을 수합한다. 그 미결정의 단서들은 언어 밖에서 사운드, 설치, 퍼포먼스 등의 형태로 잠시 뭉쳤다 곧 사라진다. 김소라의 작업은 세계의 보이지 않는 가능성들과 그 가능성이 가진 0에 가까운 무게를 드러내는, 모든 것이자 동시에 아무것도 아니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Three Foot Walking》(쿤스트할 샤를로텐보르그, 코펜하겐, 2013), 《Abstract Walking》(아트선제센터, 서울, 2012), 〈 〉(아틀리에 에르메스, 서울, 2010) 등이 있으며, 주요 단체전으로는 《Nouvelles Vagues》(팔레 드 도쿄, 파리, 2013), 《(불)가능한 풍경》(삼성미술관 플라토, 서울, 2012), 《플레이타임》(문화역 서울 284, 서울, 2012), 제10회 이스탄불 비엔날레 (2007), 제 51회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2005), 제 50회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전 (2003) 등이 있다.

박민희 (1983-, 가곡 연주자)
박민희는 전통가곡, 가사, 시조를 노래하는 보컬리스트이다. 그에게 노래의 의미는 ‘전통 음악 하기’의 방법에 대한 고민과 수행이다. 전통음악이 지닌 사회적 의미와 태도를 탐구하고, 공간과 신체를 빌어 그 절문들을 관개과 공유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가곡 하기의 태도를 찾아가는 <가곡실격: 나홀 밤>, <가곡실격: 밤5> 등이 있다.

방준석 (1970-, 기타리스트, 보컬)
방준석은 가수, 싱어송라이터, 음악 프로듀서이다. 칠레와 미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으며 1994년 이승열과 함께 록 음악 그룹 유엔미 블루를 결성하여 작곡가 겸 가수로 데뷔하였다. 대표 작품으로 너는 내 운명 OST (You’re My Sunshine, 2005), 라디오 스타 OST (비와 당신) 등이 있다. 김윤아 솔로 앨범 [Shadow Of Your Smile]과 임제범 2집 앨범 [그대는 어디에] 프로듀서이자, ‘짹패’, ‘구미호 가족’, ‘해결사’, ‘시간의 춤’, ‘오직 그대만’, ‘사도’, ‘남과 여’, ‘베테랑’ 등의 영화 OST 제작자이다.

손경호 (1968-, 드러머)
손경호는 드러머이다. ‘우리들의 몸 안에는 먼 옛날로부터 물려받은 동일한 리듬 DNA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누구든지 드러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드러머가 되었다. 현재는 그 생각이 많이 틀리지는 않았음을 확인하며 여전히 드러머이다. 작년 여름에는 강원도 어느 마을에서 풀벌레와 짝 세션을 하였으나 기록으로 남기지는 못하였다. 손경호는 현재 서울전자음악단의 멤버이자 과거 문 사이너스, 뜨거운 감자, 3호선 버터플레이, 버튼, 원더버드, 김환진 밴드, 외인부대의 맴버였다.

계수정 (1969-, 피아니스트, 작곡가, 즉흥연주자)
연세대학교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미국 버클리 음대와 Boston Conservatory에서 재즈, 작곡, 즉흥연주를 공부하고 Diploma와 석사학위를 받았다. 독일 Moers Festival, 아트센터 나비 p.art.y, 부천 국제영화제, 미국 Autumn Uprising Festival, 독일 Sonic Exchange 2012, 쿠바 킨폴로리 뮤직 페스티벌 등의 초청연주를 했다.

gayageum

a traditional Korean instrument with twelve strings

jeongga

a traditional form of Korean vocal music sung by seonbi (noble scholars)

SONGS FROM KNEE TO CHIN

A PROJECT BY SORA KIM

최태현 (1988-, 음악가)

최태현은 서울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음악가로 밴드 및 솔로 활동을 병행한다. 믹서 피드백과 전자기타를 이용한 즉흥 연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필드에서 활동하는 작가들과도 협업하고 있다. 2014년, 솔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Die Wa Q](EP)와 [Rotty](EP)를 프로듀싱/발매했으며, 2013년에 타 장르 작가들과의 협업 결과물을 기록한 오디오 카탈로그 [Parted Songs 2009-2013](2013)을 발간했다. 밴드 '콧프로그램'을 결성해 2011년부터 현재까지 활동 중이다.

황병기 (1936-, 가야금 연주가, 작곡가)

황병기는 1936년 서울 생으로, 1951년부터 국립국악원에서 가야금을 배웠다. 195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연세대학교, 워싱턴 주립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미국 하버드대학교 등에서 강의를 하였으며, 문화재 위원, 서울 전통음악 연주단 단장, 국악의 해 조직 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 예술원 부회장, 국악 축전 조직 위원회 위원장, 광복 60주년 기념 문화사업 추진 위원회 위원장, 국립 국악 관현악단 예술감독 등을 역임하였다. 1962년부터 작곡을 하여 여섯 개의 작곡집 CD와 네 개의 저서를 냈다. 현재 이화여대 명예교수,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아르코 창작 음악제 추진 위원장으로 있다.

알프레드 하르트 (1949-, 색소포니스트)

알프레드 하르트는 독일 출신의 한국인으로, 색소폰, 클라리넷 연주자이며 작곡가, 멀티미디어 예술가이다. 프랑크푸르트, 요한 볼프강 폰 괴테 대학에서 미술교육학을 전공하였다. 실험적 성격이 강한 즉흥연주로 많은 국제 페스티벌에 참가했으며 연극·영화·무용 음악 작곡 및 영상 제작을 하였고, 다수의 음반과 CD를 발표했다. 트럼펫 연주자인 최선배를 비롯한 정상급 한국인 즉흥연주자들과 연주, 녹음을 해왔으며, 최선배, 김은영(해금), 김규형(북)과 함께하는 앙상블 내일이라는 그룹의 멤버이다.

Sora Kim (1965~, Artist)

Sora Kim's work is a map of floating movement, language, and delusion, and also the trajectory of a ball thrown in all directions. She offers clues composed of a minimal amount of language to her collaborators in the position of an observer and then collects and joins the processes of their interpretation and condensation. Such undetermined clues are united for a while in the form of sound, installation, or performance but soon scattered. Kim's work is everything and nothing at the same time, disclosing the world's invisible possibilities and its weight of near zero. Notable solo exhibitions include *Three Foot Walking*, Kunsthal Charlottenborg, Copenhagen (2013); *Abstract Walking, Art Sonje Center*, Seoul (2012); and ____, Atelier Hermes, Seoul (2010). Group exhibitions include *Nouvelles Vagues*, Palais de Tokyo, Paris (2013); *(Im)possible Landscape*, Plateau, Seoul (2012); *Playtime*, Culture Station Seoul 284, Seoul (2012); the 10th International Istanbul Biennale (2007); Korean Pavilion at the 51st Venice Biennale (2005); and the 50th Venice Biennale (2003).

Tae-hwan Kang (1944~, saxophonist)

Tae-hwan Kang can be called one of the world's top three saxophonists in the international free music scene. Early in 1978, he organized the Tae-hwan Kang Trio, Korea's first free jazz band alongside trumpeter Sun-bae Choi and percussionist Dae-hwan Kim. The Trio has gained international recognition since its performance in Japan in 1987. Afterwards, it performed with world-class musicians at principal music festivals held in Germany, the United States, France, Australia, and many others, demonstrating their distinctive musical idioms. Kang continues to enhance his ability even though he is over 70 years old.

Soo-Jung Kae (1969~, pianist, composer, improviser)

Soo-Jung Kae's music is described as a "melting pot of 20th century classical music, free improvisation, punk, and jazz." She has performed as a soloist and in various settings with the Seoul City Orchestra, Hans Poppel, Nate Wooly, Okkyung Lee, Taylor Ho Bynum, Tomas Fujiwara, Frank Gratkowski, ZU, Chang U Choi, Jim Hobbs, etc. These include performances at major international festivals including Moers Festival, Autumn Uprising Festival, Jarasum Jazz Festival, and many others in Asia, Europe, and North America. Her compositions and recorded music has been used in collaboration with dance, television, and movies including Venic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nominee, 'With a Girl of Black Soil'. Currently she resides in Korea where she is a professor at the Dong-Ah Institute of Media and Arts. Soo-Jung Kae continues to experiment and fearlessly search for new ways to advance her art, and in the process provides listeners with an extraordinarily unique experience.

Min-hee Park (1983~, vocalist)

Min-hee Park is a vocalist who sings traditional *gagok* (lyrical songs), *gasa* (narrative songs), and *sijo* (traditional Korean poems). To the vocalist, a song is a concern about and practice of how "to do traditional music." Parks explores the social meaning and attitudes of traditional music that pertain to this genre, working in a way that shares her questions with the audience. Her magnum opus includes *No Longer Gagok: Four Nights* and *No Longer Gagok: Room5* through she explores how to do gagok.

Jun-seok Bang (1970~, guitarist, vocalist)

A singer, singer song-writer, and music producer, Jun-seok Bang spent his school days in Chile and the United States. In 1994, he formed the rock music group U&Me Blue along with Sung Yol Yi and made his debut as a composer-cum-singer. His major works include the original sound track (OST) for *You're My Sunshine* and other OSTs for *Radio Star*. He was a producer of music albums such as Yoon-ah Kim's solo album *Shadow of Your Smile* and Jae-beum Yim's second album *Memories*. He was also the producer of many original sound tracks for films like *The City of Violence*, *The Fox Family*, *Troubleshooter*, *Dance of Time*, *Always*, *The Throne*, *A Man and a Woman*, and *Veteran*. He has consistently performed at music concerts and festivals including the Seoul Jazz Festival 2012, Bucket List at the Age of 17, and Bahngbek Concert 2016.

Kyung-ho Sohn (1968~, drummer)

Kyung-ho Sohn became a drummer under the notion that "All of us have shared DNA related to our sense of rhythm that was inherited from remote antiquity." He is still involved in drumming in order to ensure that such an idea is not wrong. He had a jam band session at a country village in Gangwon Province last summer that was not chronicled. He is currently a member of the Seoul Electric Band and is a former member of several music groups such as The Moonshiners, Hot Potato, 3rd Line Butterfly, Button, Wonder Bird, Kim Wan-sun Band, and Foreign Legion.

Tae-hyun Choi (1988~, musician)

Tae-hyun Choi is a Seoul-based solo musician who is also active for a band. He is interested in improvisations played on mixer feedback and electronic guitar and works together with artists active in multifarious fields. In 2011 he formed a duo band called Kuang Program which remains active to this day. In 2013, he published *Parted Songs 2009-2013*, an audio catalogue which documented the results of his collaboration with other artists. In 2014 as a part of his solo project Choi produced and released two albums, *Die Wa Q and Rotty*.

Byung-ki Hwang (1936~, gayageum player, composer)

Byung-ki Hwang was born in 1936 and began studying the *gayageum*, a zither-like traditional Korean chordophone with twelve strings, at the National Gukak Center from 1951. In 1959 he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Law and went on to give lectur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usic, Yonsei University, University of Washington, Ewha Womans University College of Music, and Harvard University. He held diverse posts as a member of the Cultural Properties Committee, a leader of the Seoul Traditional Music Ensemble, President of the Organizing Committee of the Year of Gukak, Vice Chairman of the National Academy of Arts of the Republic of Korea, President of the Gukak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President of the Promotion Committee of Cultural Events for the 60th Anniversary of Korea's Liberation, and Artistic Director of the National Orchestra of Korea. Since 1962 he has released six albums of his musical compositions and authored four books. He currently serves as a professor emeritus at Ewha Womans University, is a member of the National Academy of Art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s president of the Arko Contemporary Orchestra Music Festival.

Alfred Harth (1949~, saxophonist)

Alfred Harth is a Korean saxophonist, clarinetist, composer, and multimedia artist from Germany called Alfred 23 Harth or A23H. He studied art education at the Goethe University of Frankfurt (Johann Wolfgang Goethe-Universität Frankfurt am Main). He took part in a multitude of international festivals with his experimental improvisations and has been involved in a wide range of fields such as theater, film, dance, music and video. He also released many music albums. He performed and recorded music with Korea's first-class musicians including trumpeter Sun-bae Choi. He is a member of Ensemble Naeil along with Sun-bae Choi, Eun-young Kim (haegeum, two-string fiddle) and Kyu-hyung Kim (buk, barrel drum).

과천관 30년 특별전

무릎을 꿇고 턱으로 빠지는 노래:

김소라 프로젝트

음악감독: 장영규

기술감독: 오영훈

기간

2016. 05. 25. (수) -

2016. 07. 10. (일)

매주 월요일 휴관

화, 수, 목, 금,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9시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제1전시실

문의

02. 2188. 6000

www.mmca.go.kr

30th Anniversary of MMCA Gwacheon

Songs from Knee to Chin:

A project by Sora Kim

Music Director: Young-gyu Jang

Technical Director: Young-hoon Oh

Period

May 25, 2016 -

July 10, 2016

Closed on Mondays

Tue, Wed, Thu, Fri, Sun

10:00 - 18:00

Sat

10:00 - 21:00

Venu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Gallery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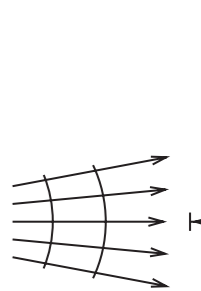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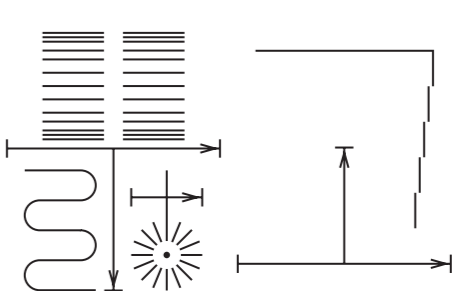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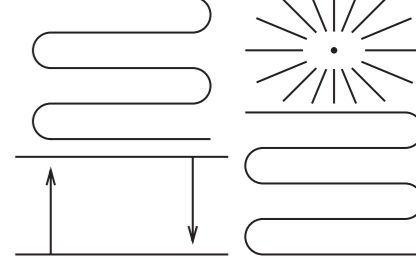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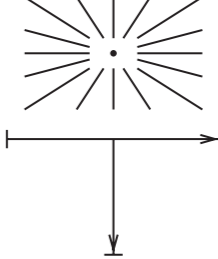
Contact

+82. 2. 2188. 6000

www.mmca.go.kr



김소라 프로젝트를 꿇고 턱으로 빠지는 노래



SONGS FROM KNEE TO CHIN
A PROJECT BY SORA KIM

